우리 교회는요…?

처음 박사과정을 시작하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로렌스에서의 생활은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오기 전부터 미리 한국에서 로렌스 한인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당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던 부장집사님과 청년들이 흔쾌히 묵을 곳도 제공해주며, 미국 생활에 필요한 여러 유익한 정보들을 나누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로렌스에서의 유학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KU에 재학중인 유학생/유학생가정들로 주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의 특성상 청/장년들과 함께 다양한 사역을 섬기며, 함께 좋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점에서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또바기 청년부 활동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비슷한 고민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개인적으로는 힘든 로렌스 생활의 또다른 휴식처와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곳 로렌스 한인교회에 오게 될 많은 유학생들이 학업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신앙적 훈련의 시간들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

김혜영, KU Molecular bioscience 박사과정.